



현대시 지문 읽는 법

1. 우린 시험장에서 현대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시는 소설과 달리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압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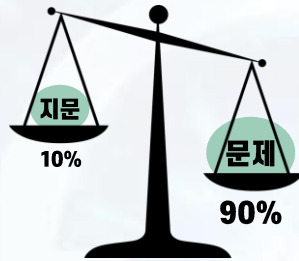
그렇기때문에 처음보는 시를 출제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평가원은 시의 감상보단 일관적인 판단의 체계를 물어본다.

게다가 고전시와 달리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다.

겉치는 주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주제성'을 활용할 수도 없다.

즉 우리가 지문을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읽어 봤자 얻을 게 별로 없는 시간낭비다.



2. 문제는 저마다 요구하는 행동이 있다.

결국 문제는 선지를 통해 주어진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각 문제엔 정해진 출제의도와 그 출제의도에 맞는 행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를 지문에서 처리하고 가지 않는다면 결국 선지를 보고 우린 무의식적으로 지문에 다시 돌아가 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문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시 읽어야만 한다.

문제를 풀기 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문을 읽으면서 정해진 행동들만 빠르게 처리하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지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줄고 더욱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일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의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표현상의 특징문제

해당 행동만 처리

(가)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빛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현대시 지문 읽는 법

3. 어차피 물어보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

지문에 있는 굵은 글씨나 **ㄱ ㄴ ㄷ** 처럼 지문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의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지문에 있는 아무런 내용이나 강조해 놓고 문제로 물어보진 않을 거다.

당연히 출제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물어볼 거다.

그렇다면 ‘중요함’에 대한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

내용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보기에서 출제자가 설정해 놓은 하나의 기준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들에 강조표시(굵은 글씨나 **ㄱ ㄴ ㄷ** 등)을 해 놓는다.

혹은 각 문제의 출제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부분에 강조표시를 해 둔다.

그렇다면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출제자가 생각하기에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로 출제 안 한다는 거다.

우린 시험장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으면 안된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행동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빠르게 읽어 내려가며 정보량을 압축해야 한다.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ㄱ ㄴ ㄷ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혼란받나봐, 아니아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고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울 거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굵은 글씨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첫 페이지를 펼치며

책을 열어보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시중의 기출 문제집이 적게는 5~7개년 많게는 10개년이 들어가 있는 반면

이 책은 겨우 1개년의 해설만 집필되어 있으니깐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많은 양의 해설을 언제 다 보지?라고 약간의 막연함과 막막함을 느꼈을테고

어떤 친구는 책 한권에 1개년뿐이니 공부할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친구 모두 지금부터 이야기 할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 책을 다루고 공부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이 잡힐 겁니다.

기출분석, 그게 뭔데?

수능국어는 유달리 기출분석이라는 말과 같이 붙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능 국어에서 기출 분석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닌가요?
 독해력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지문을 읽으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출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매년 수능이 끝나면 여러 뉴스기사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단골 주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철학과 기자가 풀어본 수능 철학지문, 교수님이 풀어본 수능 비문학,

시인이 풀어본 수능 현대시 문제

아마 수능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씩 접해본 내용일 겁니다.

이런 내용에서 항상 언급되는 이야기들은



“수능 비문학 너무 어렵다. 전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틀리면
학생들은 어떻게 맞추나?”

여기서 우리 의문이 듭니다.

만약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이 순수하게 글을 이해하고 독해하는 능력이라면
평생 수능 비문학보다 어려운 논문을 달고 사는 교수님이,
철학에 대해 전공한 사람이,
시를 직접 쓰는 시인이,
글에 대한 이해도와 독해력이 학생들보다 떨어질까요?

그럼에도 매년 수험생 사이에선 국어 고득점자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능 국어를 잘하기 위해선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독해력 그 외의 무엇이 존재해야 할까요?

수능은 결국 평가원이 낸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미래에 내가 볼 시험을 출제한 곳과 같은 평가원에서 출제된 거고

그렇다면 문제의 원리나 구성, 정답이나 함정의 패턴을 기출을 통해 정리할 수 있고

우리 과거에 나왔던 그런 원리들을 토대로 미래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과거의 문제들에서 미래의 문제를 예측해내고

완벽한 대비가 가능할까요?



어차피 낼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다.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
[A]
}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당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B]
}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올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율,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어차피 낼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다.

위 문제는 2020년 6월에 나왔던 현대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면 작년의 수능과 올해 시행된 4평의 현대시 문제를
10초안에 풀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지를 보면 각 단락을 따로 따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 각각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단락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가볍게 생각해볼까요?

만약 지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끝난다면

각 단락간의 관계는 전부 같은 관계일겁니다.

그럼 선지 5개가 모두 같은 내용으로 써질 텐데 그럼 문제 출제의 의미가 없겠죠
맞습니다. 해당 문제는 지문에서 상황변화가 있는 시에서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야 동질적 관계, 대립적 관계, 상황 변화 전 후, 인과적 관계 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선지를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제의 선지를 자세히 봐볼까요?

A는 부정적 상황을 B는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상황으로 두 상황을 대립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즉 단락 AB는 상황의 변화 전후를 드러내고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선지를 보시면 4번을 제외하고 1235가 전부 똑같은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A의 부정적 상황이 B의 긍정적 상황으로 변화했다 라는 내용으로 물어보고 있죠.

우린 여기서 아래와 같이 해당 문제에 대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① 단락간 관계 문제는 시의 상황 변화를 물어본다.
시를 읽을 때 상황 변화를 명확하게 체크하자.
- ② 상황의 변화 전 후를 기준으로 물어보니 변화 전과 후를 나눠
동질적 관계, 대립적 관계, 인과적 관계(변화의 기점)을 물어볼 수 있다.
→ 상황 변화 지점을 명확하게 잡고 선지를 위의 기준대로 판단하자
- ③ 해당 문제에선 상황 변화 전 후를 명확하게 나눠줬는데 나중엔 단락을
여러 개로 제시한 후에 학생들이 직접 변화의 지점을 잡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나)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때, 별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A]
함께 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B]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C]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D]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여	[E]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F]
덧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F]

- 나희덕, 『음지의 꽃』 -

33. [A]~[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참나무가 별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③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④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⑤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위 문제는 작년 시행된 수능 현대시 문제입니다. 만약 기출을 통해 분석이 되었다면 지문을 읽으며 C를 기점으로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선지 1

1번의 순환적 관계라는 말은 변화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A와 B는 모두 상황 변화 전이니 순환적 관계는 적절할 수 없습니다.

선지 2

2번의 순차적 관계는 말 그대로 B에서 C로 순차적으로 변화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C가 변화의 기점이었으니 B와 C는 순차적 관계가 맞습니다.

선지 3

3번의 대립적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상황 변화 전과 후를 대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C와 D 모두 상황 변화 이후를 다루는 단락이기에 대립적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 4

4번의 인과적 관계는 상황이 변화한 기점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C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C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오답입니다.

선지 5

5번이 이 문제 유형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황 변화 후니 E와 F는 동질적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F의 덮을 길 없는 이란 워딩이 E와 F가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미래엔 상황 변화 전 후에 미묘하게 다른 차이를 가지고 함정 선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한 친구들은 선지를 보고 지문으로 돌아가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정확한 출제의도를 파악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 문제 유형만 통하는 것일까요? 모든 수능 국어 문제가 분석을 통해 압도
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강조포인트)

올해 4월 문제는 한번 위의 분석을 토대로 풀어보세요.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다음 이
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A] 부패해가는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를
나는 발표시키려 한다

[B] 나는 충분히 씹으면서 살아왔다
목은 관료들은 숙변을 내게 들이부었고
나는 낮은 자로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수렁 바닥에서 멍든 얼굴이 썩고 있을 때나
호린 물 위로 떠오를 때에도

[C] 나는 **침묵**했고
그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한때 이미 죽었거나

[D]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든 자**로서
울부짖을 대신 쓴 거품을 내뿜었을 뿐이다
문제는 스스로 **마음**에 뚜껑을 덮고 오물을 거부할수록
오물들이 더 불어났다든 사실이다
뒤늦게 나는 그 **뚜껑이 생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다
물왕저수지라는 낱말이 내 마음의 한 번두리에 꽂혀 있다
나는 그 저수지를 **본 적이 없다**

[E] 긴 가문 날 흠연지투성이 버스 유리창을 통해
물왕저수지로 가는 길가의 낱말을 얼핏 보았을 뿐이다
그 저수지에
물의 법이 물왕의 도가
아직도 순환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 저수지에 왕골을 헤치며 다니는 **물뱀**들이
춤처럼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흰 **갈대꽃**이 피고
잉어들은 짹짹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

[F] 발표하는 숨결이 험차게 움직이고 있음을
내 마음에도 전해주기 바란다

- 최승호, 「발효」 -

25. [A] ~ [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를 [B]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지속되고 있다.
-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타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④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책을 다루는 방법

기출 분석의 힘을 좀 제대로 느끼셨나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보고 이 정도의 분석을 해내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 이런 풀이를 다들 처음 보셨을 겁니다.

시중의 해설지나 강의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식의 풀이를 사용하기에 학생들이 기출을 공부하며 참고하는 매체에선 이런 방식의 사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분석은 이미 제가 모두 완료했습니다”

학생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분석의 체계를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주세요

이 책에는 각 문제별로 가장 효율적인 풀이에 대한 분석과
수능 국어의 모든 상황과 관련해 가장 효과적인 사고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험지 하나에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출을 풀고 채점하고 틀린 이유만 체크하거나
의미 없는 회독을 하며 기출을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주세요.
해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며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책을 다루는 방법

1.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80분간 문제를 푼다.
2. 한 지문 씩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다.
3. 각 선지별로 어떤 판단과정을 거쳤는지 적어본다. 선지의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선지 판단까지 이루어졌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보세요.
4. 지문을 다시 풀어보며 더 좋은 판단과정이 없었는지 점검하세요. 더 효율적인 판단은 없었는지 더 시간을 줄일 순 없었는지 고민해보세요.
5. 그렇게 모든 선지들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피드백을 해보세요. 기준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세요. 맞췄더라도 3초안에 선지 판단이 불가능했으면 틀린겁니다.
6. 선지 피드백을 종합해 결국 이 지문은 이렇게 읽고 풀었어야 했다와 같은 결론을 정리해보세요.
7. 해설지를 보며 본인의 판단과정과 비교해보며 피드백을 보충해보세요.
8. 다음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 반드시 피드백을 체크하고 그걸 적용해보세요.

피드백의 중요성

국어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어공부의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냥 계획표에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비문학 문학 1지문씩은 풀어야 하니까,
아니면 오늘 공부시간을 채우기 위해 국어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조금만 떨어져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문학 과학지문을 푸는 이유는
다시는 과학지문을 안 틀리고 완벽하게 풀기 위함이고
우리가 현대시를 푸는 이유는
다시는 현대시를 틀리지 않고 더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강조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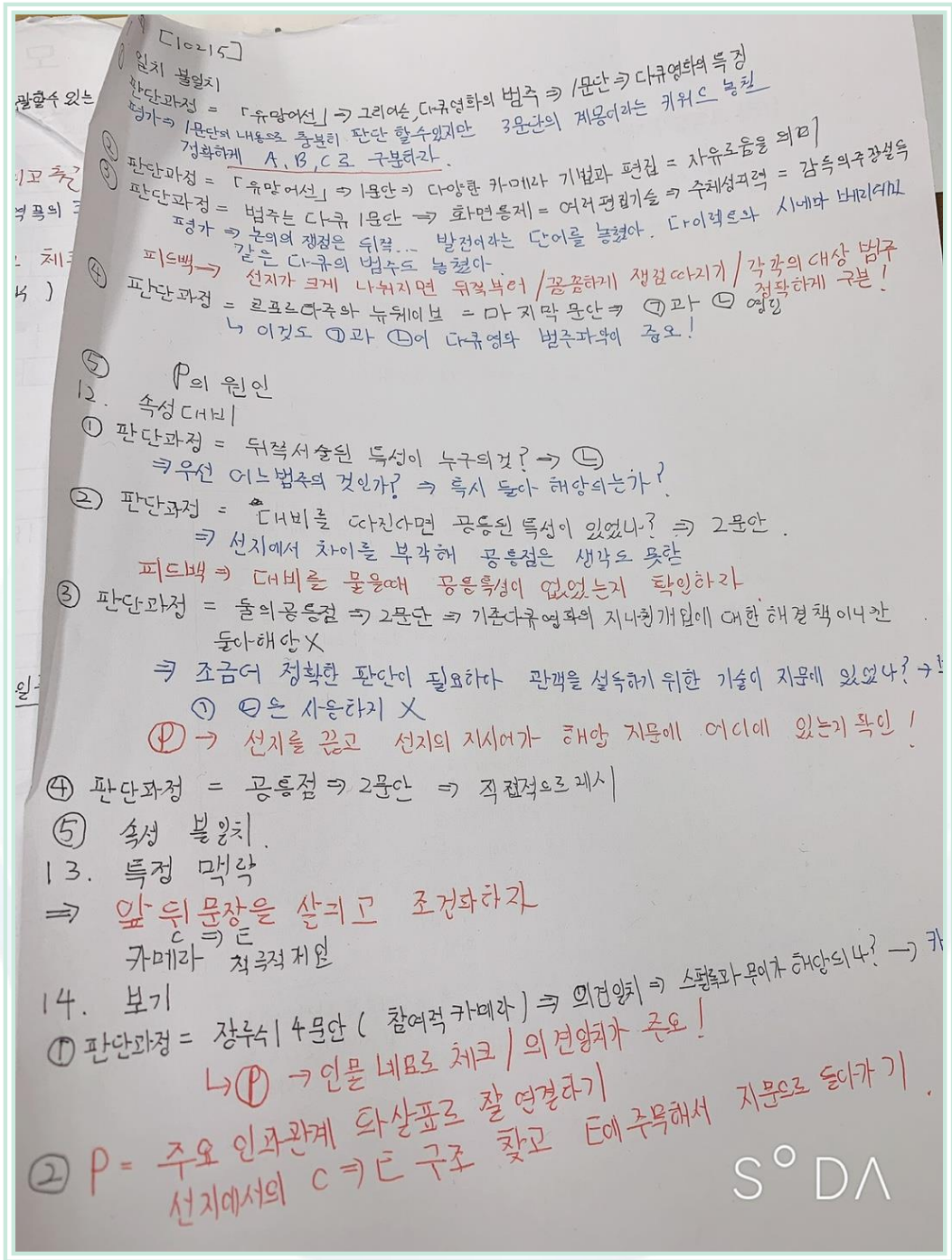
저 역시도 공부시간을 채우는데 급급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비문학과 문학을 풀어야 하니까 풀었던 거고
그다지 공부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번 과학지문은 어렵기만 하고 아무리 과학지문을 풀고 공부해봐도
매번 새롭고 다르게 느껴지며 어찌면 막연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지금 과학지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다음번에 새로운 과학지문을 만났을 때 안 틀리기 위함인데
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나?(강조포인트)
나는 과학지문을 왜 어렵게 느끼고 있고
이게 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출제자가 의도한 어려움인지
과학지문을 효율적으로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 그때까지 이런 고민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어를 잘한다는 건 선지를 3초안에 고민 없이 깔끔하게 판단하는 거다.

모든 선지의 판단과정을 뜯어보고 최고의 판단 과정을 찾아보자!”



위 사진은 그 목표를 세운 뒤 제가 공부했던 분석지입니다.

우선 아침에 모의고사 전체 세트를 풀 뒤에

45문제, 225개 선지에 대한 판단과정을 각각 모두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내가 선지의 어떤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서 결국 판단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모든 판단과정을 뜯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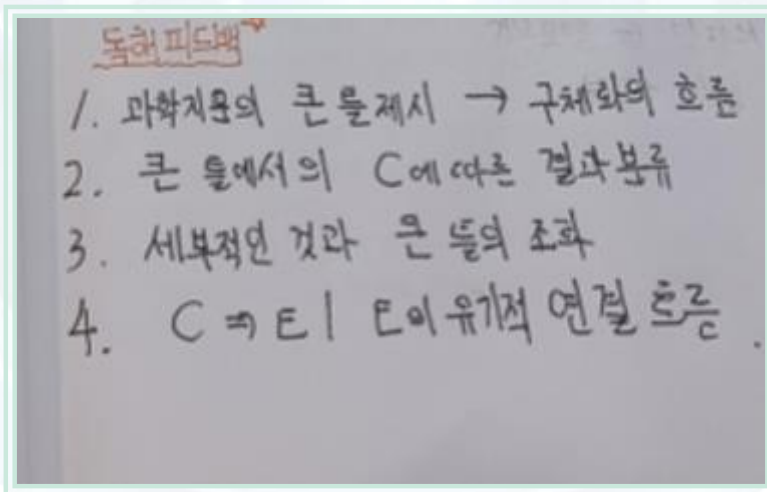
그리고 지문을 다시 읽고 다시 풀어보며

더 효율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판단과정을 단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선지마다 판단과정의 문제점과 피드백을 정리하고

그래서 결국 이 지문은 이렇게 읽었어야 했다! 라는 결론까지 도출했습니다.



(한 지문을 모두 정리한 뒤에 지문을 이렇게 읽었어야 했다라고 정리한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들을 비슷한 유형의 지문과 문제에 적용시켜봤습니다.



내가 피드백해서 만들어낸 사고의 과정이 과연 모든 지문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특수한 지문에서만 먹히는 거였는지 모두 점검하며

제 사고과정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쳐갔습니다.

그렇게 하니 매 지문 실력이 늘어간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마다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걸 지키면서 읽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바로바로 파악이 되었으니까요.



이 방법을 과외를 하며 수많은 학생들에게 지도했고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수강생들에게 지도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국어가 오르지 않던 친구들은 단1~2개월만에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점수들을 받았습니다.



문학은 주관적인 예술이다.

선생님 89점 입니다. 화작은 다 맞았고 비문학은 3개, 문학은 2개 틀렸습니다. 아직 화작이랑 고전소설은 선생님께 배우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마지막 문제는 제대로 못 풀었습니다. 거의 4~5등급이었는데 정말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재서 푼 건 정말로 오랜만이라서 시간배분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수능때 지금까지 해왔던 거 꾸준히만 하면 1등급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3평 강의 보면서 점검하겠습니다!

오후 8:20

89라니 엄청난 발전이네요! 1컷이 88인가 89 아니었나요 학생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이런 상승이 있었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 국어 정복 정말 가능합니다

오후 8:28

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ㅋㅋ 두달만에 4 5등급이 1등급이 될 수 있다니 더 열심히 선생님 수업 따라가겠습니다!

오후 8:41

3평 풀어봤습니다 진짜 3등급 이상을 삼수할 때까지 맞아본 적이 없는데 94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교육청이고 학원에서 푼 거지만 진짜 말이 안되네요 문학이 어려웠다는데 배운대로 푸니까 정말 쉽게 넘어갔어요.. 감사합니다 ㅠㅠ

오후 9:23

명사

1.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가 있다.

문학 동인.

출처:네이버지식백과

문학의 사전적 정의는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입니다.

즉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상대방에게 여러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입니다

이런 문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오랜 세월동안 사랑받게 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마다 작품을 보고 드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문학은 주관적인 예술이다.



최근에 나온 슈퍼마리오 역시 평론가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지만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볼 때도 내가 재밌다고 생각한 영화를
평론가가 악평을 해 놓은 영화도 있고
내가 정말 감동을 받은 시가
누군가에게 무미건조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화도 시도, 모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예술이기에
사람마다 느끼는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든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수능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면 안되는데..
그럼 수능에서 문학은 어떻게 내는거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능은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입니다.
‘다름’이 허용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문학 작품을 보고 드는 생각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면
누군가는 ‘나는 이 작품을 이렇게 이해했는데?’라고
이의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런 어려움에도 문학이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학의 객관화, 수능 문학의 본질

평가원도 아마 꽤나 고민을 했을 겁니다.

문학의 주관성을 수능 시험에 맞게 객관화 시켜야 했으니까요.

평가원이 이런 머리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3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 ① 보기를 통한 하나의 기준 제시
- ② 단어 위주의 판단 (체계적인 판단경로)
- ③ 객관화를 통한 출제 방식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시중의 해설지들은 이 3가지를 간과합니다.

대부분 지문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식으로 문학을 풀이합니다.

시험장과 같이 촉박한 상황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출제자와 똑같이 해석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귀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를 복도 쓸데없이 빈 벽에 남겨 두고
 ㉡ 솔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회로우락(喜憂憂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위해 무엇하리

[A]

- 정훈, 『탄궁가』 -

(나)

서산에 돌을벌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
 ㉡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굵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B]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탐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서라
 ㉢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능가』 -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애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올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위 문제는 굉장히 특별한 문제입니다.

평가원은 원래 해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평가원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꽤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EBS해설지와 대부분의 인강강사들의 해설과 평가원 해설지가 충돌했거든요.

3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의 '하늘'과 [B]의 '하느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를 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도 '하느님'이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지, 이를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위 해설은 ebs에서 냈던 해설입니다.

해설을 보시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풀이를 합니다.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 표현은 이걸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이런 풀이를 사용합니다.



문학의 객관화, 수능 문학의 본질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 사람마다 문학을 바라보며 느끼는 생각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ebs해설지와 대부분의 인강강사들이 그렇듯 국어에 능숙한 사람들과 국어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출제자와 다른 생각을 해서 오답을 낼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훨씬 국어적인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런 주관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해 평가원은 3가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우선 해당 문제는 보기가 없으니 2번째 키워드인 단어 위주의 판단을 사용해보겠습니다.

$$\boxed{\text{선지}} = \boxed{\text{사실}} + \boxed{\text{주관}}$$

선지는 지문에 있는 실제 표현(사실)을 출제자가 어떻게 해석했는지(주관)가 주된 선지의 구성요소입니다.

해당 선지의 ‘하늘’과 ‘하느님’이 선지의 사실이고
예찬하는 어조가 선지의 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늘이란 단어로는 이게 예찬하는 어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지의 사실 부분으로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
우린 사실의 주변부로 가야 합니다.



문학의 객관화, 수능 문학의 본질

적절한
선지

사실의 주변부에 선지의 주관을
바꿔쓸 수 있는 '단어' 존재

적절하지
않은 선지

- (1) 사실의 주변부에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킬 '단어' 존재 X(없는 내용)
- (2) 사실의 주변부에 선지의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 존재

그리고 판단과정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적절한 선지라면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키는 단어가 존재하고

적절치 않은 선지라면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거나

주관을 정당화시킬 단어가 없으면 평가원은 적절치 않은 선지라고 판단합니다.

이걸 문제에 적용시켜보겠습니다.

‘하늘’의 주변엔 ‘궁’이라는 단어나 ‘빈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각각 가난함을 뜻하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예찬하는 어조라는 긍정적 단어와 반대되네요. 그러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하느님’의 주변엔 ‘날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날 위하여 세상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니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네요. 예찬적 어조를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예찬하는 어조라고 볼 수 없고 ‘하느님’은 예찬하는 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은 평가원이 사용하는 고전시가의 한정된 주제성이란 특징을 배워야 합니다. 뒷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심화된 해설이 있으니 나중에 그걸 꼭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단어의 정의는 문장 표현의 일부분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문학의 객관화, 수능 문학의 본질

문학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고전시가 작품에서 형성화되는 화자의 말과 행위, 태도의 양상을 인식하고, 이를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의 특징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은 고전시가 작품 두 편의 특정 부분을 [A], [B]로 초점화하여 해당 부분에서 확인되는 화자의 형성화 방식과 그 효과, 의미 등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가)의 [A]에서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늘'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품의 내적 맥락에서 '하늘'은 화자에게 빈천한 운명을 부여하여 수용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체념의 어조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나)의 [B]에서도 초월적 존재인 '하느님'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품의 내적 맥락에서 '하느님'은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들어낸 존재로서, 화자는 이와 같은 '하느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여 예찬하는 모습을 보인다. [B]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A]에서 확인되는 화자의 말들을 '예찬하는 어조'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A]와 [B] 모두 화자가 대상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다양한 화자들의 특징과 그 효과, 의미 등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사진은 해당 선지에 대한 평가원의 해설입니다.

‘하늘’에 대해선 빈천한 운명을 부여하고 수용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근거로

예찬하는 어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생각을 끌어내는 판단의 근거가 ‘빈천’과 ‘궁’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늘’에 대해선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을 근거로 예찬하는 어조에 대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날 위하여’라는 단어가 예찬하는 어조를 정당화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장단위이상의 생각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면 문학은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른 주관적인 예술이니까요.

그러나 단어 위주의 판단을 하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됩니다.

그러니 평가원 입장에선 단어 위주의 판단을 통해 객관화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누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자 봐봐 여기 옆에 이 단어랑 선지의 주관이랑 반대되네?”

라고 하면 반박의 여지가 최소화될테니까요.



보기를 통한 객관화, 일관적인 판단의 체계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개짝
양말 오십 타
정종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위의 문제를 통해 평가원이 어떻게 문학을 객관화 시키는지 확인해봅시다.

B에선 들뜬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없습니다.

뭔가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감정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글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에 치우친 친구들은 해당 선지를 지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평가원의 체계와 본질을 파악한다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보기를 통한 객관화, 일관적인 판단의 체계

“보기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지문에 있는 모든 표현은
보기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지문에 나온 내용이 보기와 다르게 해석된다면 객관성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왜냐면 해당 부분을 여러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니까요.

위의 보기에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해서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에서 항목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무조건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는 거라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직접적으로 장면의 고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더라도 말이죠.

B에서 여러 물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장면의 분위기가 고조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객관화를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2번선지는 적절한 선지가 되는 겁니다.



보기를 통한 객관화, 일관적인 판단의 체계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놀린다.

먼 길에 올 제,
㉠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건디게 향그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가)선지들만 풀어보세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해설이 있으니
문제를 풀어보고 넘겨주세요.



선지 1

1번부터 봐볼게요. 1번 선지의 주관은 사물과의 교감입니다.

보기에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준다고 나와있네요. 지문에 나온 모든 대상과 표현은 화자와 교감하는 사물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선지의 사실 부분에서 ‘같이’라는 표현도 있네요. 만약 보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플라타너스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같이 걷는다고 하는 건지 플라타너스로 인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걷는다고 하는 건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기가 있으니 반드시 ‘같이’라는 표현은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해당 선지는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선지만 보고 바로 정당화가 되네요.

선지 2

2번선지를 봐볼게요. 선지의 주관인 삶의 여정이 보기에도 나와있네요. 그러니 지문에 나와있는 표현들은 삶의 여정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선지의 사실 부분에 이를 드러내 줄 수 있는 표현만 있으면 해당 선지는 바로 정당화될 수 있겠네요.

‘어느 날’에 이른다는 표현은 반드시 보기의 주제성 아래에서 삶의 여정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선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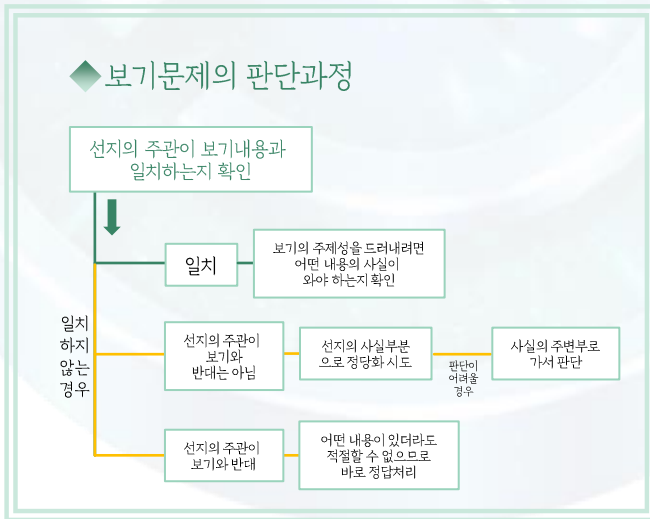
3번선지를 봐볼게요.

선지의 이상세계의 완전함은 보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기엔 이상세계인 하늘을 지향한다는 말은 있지만 이상세계의 완전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기와 충돌(반대)되진 않지만 보기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을 저는 ‘서브주제’라고 부릅니다.

단어 설명

서브주제 : 보기와 충돌(반대)되진 않지만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보기에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 표현이 진짜 선지의 주관을 드러내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런 서브 주제는 먼저 선지의 사실 부분이 선지의 주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보고 만약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실의 주변부로 가서 위에서 배웠던 판단과정을 적용합니다.



우선 선지의 사실 부분인 ‘창’과 ‘하늘’엔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정당화시켜줄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으로 가봐야겠죠. 주변이라고 하면 앞뒤 한 문장 길면 하나의 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를 맞아 줄/검은 흙이 먼/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오직 너를 지켜/네 이웃이 되고/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주변에 완전함을 드러내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적절치 않은 선지입니다.

정답해설 : (가)에서 '창'은 <보기>에서 언급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관련된
 라고 볼 수 있으나, '창' 자체가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선지에 대한 ebs의 해설입니다. '창'이 이런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저렇게 볼
 수는 없다. 시를 읽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출제자랑 생각이 일치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니 사실의 주변에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으면 해당 표현
 은 선지의 주관을 드러내는게 아닌 "적절치 않은 선지다!"라고 실전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기를 통한 객관화, 일관적인 판단의 체계

그러나 해당 보기가 있으니 반드시 '같이'라는 표현은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해당 선지는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선지만 보고 바로 정당화가 되네요.

그러나 해당 보기가 있으니 반드시 '같이'라는 표현은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해당 선지는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선지만 보고 바로 정당화가 되네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앞에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판단과정을 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글을 이해하거나 감상하는 방식의 판단 과정이 아닌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 확인시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각 문학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부터
각 문학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각 유형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체계 등을
하나씩 하나 씩 소개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내용들이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디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분석이라는게 진짜 있을까?

전 수능에서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형 문제와 특수형 문제.

일반형 문제는 문제가 출제되는 허들 자체가 굉장히 낮은 문제를 뜻합니다.

즉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분석이라는게 진짜 있을까?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풀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의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위와 같은 보기문제나 표현상의 특징문제들은
지문에 상관없이 항상 출현하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시를 읽고 든 생각을 기준으로

보기를 작성한 뒤 거기에 맞춰 선지들을 제작하면 되고

표현상의 특징은 지문에 있는 실제 표현들을 선지로 그대로 구현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지문과 상관없이 출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일반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분석이라는게 진짜 있을까?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웃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셋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위에서 봤던 이 문제는 어떤 지문에선 나오지만 어떤 지문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문에 따라 문제의 출현 조건이 정해지는 문제를 “**특수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출현조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은 명확한 출제의도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정확한 문제 분석을 통해 완벽하게 공략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현대시를 시작으로 모든 문제 유형에 대한 문제 분석을 통해

각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마인드와 체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편에선 정석적인 문제유형들만 다룰 테니

보기가 없는 내용 문제 같이 특수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집 해설에서 나올 때마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